

ha이상으로 구분하여 임업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거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한 5.8조치와 같은 폐단은 해소될 전망이다.

- 임업진흥에 필요한 재원은 '99년부터 운용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서 지원(매년 2000억원정도, 수입임산물관세액 년 1400억원/산림전용부담금 년600억원)됨에 따라 사유림경영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산림청은 '97. 7. 21 산지이용체계의 재편을 마무리하고, 임업진흥촉진법 시행과 함께 임지별 경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산지의 55%인 생산임지(3,548천ha)는 목재생산과 함께 펄프원료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으로 경제재의 공급 및 산주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공익임지(1,429천ha)는 수원함양등 공익목적 달성과 함께 산주의 소득을 고려한 고품질 수종 중심으로 육성하며, 준보전임지(1,475천ha)는 산업

용지로 전환될 때까지는 단기소득 임산물 중심으로 경영하기로 했다.

- 또한, 산림청은 임업진흥을 위하여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생산임지가 많은 지역을 임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권역내 부재산주의 임야에 대하여는 대리경영을 유도하여 산촌과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하며,
- 소유규모가 영세한 사유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산에서 나무뿐만아니라 산채·약초의 재배, 야생동물의 사육과 휴양림업 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농민이 농장에서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듯이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임업진흥촉진법 시행과 함께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확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보호는 물론 임산물의 수급안정도모하기로 했다.

재배차원의 송이산 관리가 필요하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송이채취시

기를 앞두고, 최근 감소추세인 송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재배차원의 송이산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송이채취에서 송이재배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철저한 송이산가꾸기를 당부하고 있다.

〈송이 현황〉

- 송이는 버섯중 외화가득율이 가장 높은 산림부산물이며, 연평균 5천만 불정도를 수출하는 농산촌 최고의 입산소득원이다.
- 유일한 송이수입국 일본의 최인접국으로 신선도가 생명인 송이수출에서는 천혜의 자연적 여건이며, 우리나라 생산량을 전량 수출하여도 일본 수요량의 10%내외를 점할 뿐으로 수요무한의 소득증대품목이다.
- 우리나라의 송이생산량은 '80년대 중반부터 감소추세이며, 그 원인은 병충해등으로 소나무림이 쇠퇴하고,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송이발생환경이 악화되는 데 있다.
- '96년도 일본은 아시아권외에도 아프리카와 북미지역을 포함한 11개국으로부터 2,700여톤을 수입하였고, 이중 6%를 점한 우리나라는 송이 수출물량면에서 중국, 북한, 캐나다, 미국에 이은 5위에 불과하다.
- 대부분의 균근성버섯과 마찬가지로 송이는 아직 인공재배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이발생림에서 미발생소나무림으로의 이식도 되지 않아, 자연상태의 발생림을 극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송이산 환경관리는 송이 발생림과

미발생 적지에 대한 환경개선, 환경조성으로 최적 발생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환경정리만으로도 2배이상의 송이증산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이산 관리요령〉

1. 식생 관리

- 적정밀도의 소나무림을 세력이 좋은 상층림으로 만들기 위해 참나무류를 포함한 직경 6cm이상의 활잡목은 전부 제거한다.
- 하층 활잡목은 2m높이에서 절단하고 잔존본수는 1~2본/1㎡ 정도 남기며, 지상 2m이상은 소나무만 남도록 한다.
- 벌채목과 제거된 고사지는 반드시 송이산 밖으로 반출한다.
- 소나무지배림(소나무수)타수종수)이 아닌 경우는 점진적으로 다른 수종을 제거하고, 소나무치수를 잔존시켜 후계수로 육성한다.
- 높이 1m이하의 관목, 초본은 전부 제거하고, 잔존 활잡목도 이 높이가 지는 지엽을 모두 제거한다(30%이하의 피복도 유지).
- 식생정리작업은 새잎이 완전히 전개된 후(5~8월)에 실시한다.

2. 지표면 관리

- A0층(낙엽부식층)의 깊이가 6cm이상이면 낙엽굵기를 해주고, 3~5cm는 식생 및 퇴적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 지표면 정리는 소나무의 휴면기인 겨울동안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송이균환 관리

- 매년의 송이 발생위치를 표시하여 송이를 발생시키는 모체인 균환(균사집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균환선단의 전진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식생과 부식층 제거, 침식되거나 토심이 얇은 곳은 복토)
- 송이균환 1개당 포자전파용 종자송이를 1~2개 남긴다.

4. 송이품질 관리

- 컵 씌우기 : 갓 직경 3cm 미만의 어린 송이에 직경 6.5cm, 높이 8cm의 종이컵 또는 플라스틱컵을 윗쪽에 직경 5mm크기의 구멍을 뚫어서 3~4일간 씌운다(충해방지 및 2배의 증수효과)
- 흙 피복 : 송이가 지상에 보이기 시작하면, 4~5cm 두께로 심토를 덮어주고, 그 위로 올라오면 한 번더 3~4cm 두께로 덮어준다(증산 및 상등품 수확).
- 관수(물주기) : 강수량이 송이생

산량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대상으로 스프링쿨러 장치나 호스를 이용하여 송이원기가 형성되는 8월초순부터 2일 간격으로 m^2 당 10ℓ의 물을 관수해 준다(5배이상 증산 및 상등품 수확)

5. 시업후의 관리

- 식생관리 보완작업은 이듬해 및 2~3년 간격으로 실시하며, 하층목 및 그루터기의 맹아지와 지표면의 초본류를 모두 제거한다.
-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충영형성을 30%미만으로 유지한다. 방제첫해는 송이산 전체를 수간주사하고, 이듬해부터는 송이발생지 주변만을 집중 방제한다.
- 현재 송이가 나는 발생림에 급격한 환경변화를 주면 그 영향으로 4~5년간 송이가 나지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벼운 시업을 수년에 걸쳐 반복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미발생 어린소나무림의 낙엽부식층은 갈색삼림토가 보이도록 강하게 긁어주고, 본격적인 시업기에 달할 때까지 서서히 유도해 간다.

내년부터 수렵면허 시험제 실시

산림청에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7월 30일 제184